

한스·싱어의 開發理論과 韓國經濟

朴 宇 熙*

한스·싱어는 1910년에 태어나 西獨 본大學에서 슈페디와 슈피트호프 밑에서 經濟學者로서의 教育을 받았고 슈피트호프의 助手로 일했으며 히틀러 治下에서 벗어나 더키의 이스탄불에 거주한 적도 있었다.

1933年 英國 케임브리지에 온 뒤 케인즈 밑에서 1936년까지 아직도 未刊인 博士論文「都市의 家賃」(Urban House Rent)을 완성했고, 이어 英國의 失業問題를 研究하기 위한 機關인 淸教徒研究所(Pilgrim Trust Enquiry)로 옮겨 윌터·오크쇼트(후에 옥스포드大學校 링컨大學 學長) 및 데이비드·오웬卿과 共同研究를 한 적도 있었다.

제 2차 세계대전 1~2년 전에 그는 英國 만체스터大學의 教授가 되었고(短期間 敵國人으로서 리버풀近郊에 억류되었던 것을 제외하면) 大戰中은 大學과 政府當局을 위해 일했으며 大戰末에는 地方都市計劃省의 一員이 되기도 하였다. 이어 글라스고우大學에서 1년을 지낸 뒤 데이비드·오웬卿의 招請을 받아 生涯의 주된 일이 된 UN을 위한 獻身이 시작되었다.

그는 UN事務局에서 보낸 22년 동안 開發課長, 經濟社會理事會次長附 特別顧問 등의 요직을 맡아 몹시 바쁘게 활동하였다. 그는 또 이 기간중 社會科學大學(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의 經濟學客員教授를 지내기도 하였다. 1960년대의 마지막에는 뉴욕市立大學 및 매사추세츠의 윌리엄즈大學의 客員教授로 활동하였다.

1969년 최종적으로 UN事務局을 퇴직한 뒤 英國으로 돌아와 서섹스大學校의 教授와 同大學內에 있는 開發問題研究所(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IDS)의 教授級 研究員이 되었다. 여기서 그는 UN이나 그밖의 國際機關을 위해 諮問役割을 맡기도 하고 海外調査團에 참가하기도 하면서 論文을 쓰며 著述을 계속하고 있다.

알렉·케언크로스卿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¹⁾, 한스·싱어는 一見 溫和하고 매너가 靜謐하며 論爭에 조심스럽기 때문에 知性이나 信念이 表面에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가 풍기는 印象은 他人으로부터 反駁받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자기 쪽에서 감히 반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貿易學科 教授

(1) *The Strateg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Essays in the Economics of Backwardness*, Sir Alec Cairncross and Mohinder Puri(eds.) (The Macmillan Press Ltd., 1975), 序文 參照.

박하지 않는다는 것같은 불안한 표정의 自信있는, 그러나 分別있는 인간이라는 느낌을 풍겨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는 결코 반박받는 일은 없고 또 설사 그 自身은 친절로서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의미하는 것은 종종 누군가를 批判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상냥하고 理性的이며 말하는 냉정하게 기침없이 흘러간다. 그가 自身의 생각을 근심스럽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의 論述을 無批判의으로 삼켜 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스·싱어만큼 經濟的 後進性에 대해 조리있게 잘 써 온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 과거 25년 동안 그의 著書, 論文, 論說, 評論 및 報告書는 극히 多種多樣的 형태로 계속 出版되었다. 1969년 UN事務局을 퇴직한 후에도 國際機關이나 각국 政府에 (때반은 다른 사립들과 공동으로) 수많은 報告書를 제출하고 있다. 완전한 目錄으로 하면 그의 著作은 數百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超人的인 作業의 大部分은 세계를 누빈 빈번한 旅行으로 중단되기도 하면서도 극히 公務의 奔忙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가 訪問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이며, 또 그한테서 助言을 받지 않은 나라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그는 (현재 혹은 과거의) 어떤 에코노미스트보다 각양각색의 聽衆에게 여러 場所에서 여러 主題에 관하여 말해 왔다. 그는 大陸에서 大陸으로 이동하면서 經濟發展의 戰略을 해설하고 提唱하고 고안해 왔다. 그는 旅行의 틈바귀를 누비 써 낸 그 山과 같은 워킹·페이퍼와 公表된 論文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왔다. 그는 또 동시에 여러 나라에서 講演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그의 多筆性에 反感을 가진 에코노미스트도 없지 않았다. 30여년 전 어떤 사람은 냉혹하게 그를 「近代經濟學의 에드가·월레스(Edgar Wallace, 1875~1932, 영국의 드릴러 作家이고 多作으로 有名)」라고 평한 바 있다. 그러나 거창한 量의 논문은 그 量과 마찬가지로 豊富한 아이디어와 밸런스가 잡혀 있다. 한스·싱어는 항상 新鮮한 論評과 提案을 계속 낳고 있고, 무엇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만을 強調하는 消極的인 態度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본질적으로 實踐的인 에코노미스트이며 항상 무엇이 可能한가를 究明하고 가장 有望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무엇이건 그 支持를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다. 정녕 그의 知的 에네르기와 博識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의 著作 중의 많은 것 특히 近年의 것은 一般 讀者에게는 물론 專門 에코노미스트도 쉽게 구할 수가 없다. 그의 저작은 이미 1964년⁽²⁾과

(2) *International Development: Growth and Change* (McGraw-Hill, 1964).

1970년⁽³⁾에 각기 책으로 出刊된 바 있다. 그러나 前者는 絶版되었고 또 後者는 入門用的 共著이기 때문에 그의 근년의 연구가 올바르게 反映되어 있지 않으며 또 그의 見解의 發展 過程도 나타나 있지 않다.

國際經濟開發에 관한 한스·싱어의 主張은 수백편의 글을 통하여 일관되게 다음의 몇 가지로 그 特徵이 要約될 수 있다.

- ① 開發要因으로서의 技術의 重要性
- ② 勞動集約의 技術을 통한 雇傭增大와 所得均配의 重要性
- ③ 利益分配에 있어서의 新國際經濟秩序定立의 重要性

일반적으로 筆者는 한스·싱어나 현재의 IDS 所長인 리차드·조리를 중심으로 하는 서섹스·그룹의 생각에 全面的으로 贊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위의 ①에 있어 한스·싱어는 경제발전의 原動力이 尙古적으로는 發展途上國의 技術能力的 向上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경우 既成의 技術을 기계적으로 移轉하는 것이 아니고 發展途上國의 土壤에 뿌리를 박은 技術의 發展을 促進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진국의 경험을 보면 萬國 共通이라고 할 수 있는 技術의 比重도 컸다고 할 수 있다. 나라에 따라 여러 가지의 固有技術의 발전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만을 너무 강조한다는 것은 技術 전체를 잘못 볼 危險이 있다. 民間企業이 採算性과 市場機能에 의거하여 技術과 産業의 選擇을 해온 것이 결과적으로 그 나라의 조건에 들어 맞은 일이 있다. 計劃的으로 그 나라에 맞는 技術을 育成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國際的인 비교 생산비의 입장에서 技術의 선택을 생각하는 것도 現實的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한스·싱어가 分配面과 社會正義를 강조하는 思考는 웨비안協會(Fabian Society) 이래의 英國의 傳統이다. 이 문제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후진국의 경험으로 보면 生産의 增大에 더욱 중점을 두는 식의 입장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發展途上國에 있어서의 높은 人口增加率을 고려한다면 生産이 증가되지 않으면 그저 貧困만을 나누어 가지는 셈이므로 分配面을 중시하는 나머지 經濟成長의 중요성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한스·싱어는 그 점에 관해서 分配의 公正이 生産증가의 原動力이 된다고 대답한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개개의 나라 나라에 관해서 뚜렷하게 現實을 딛고 선 위에서 公正한 分配과 經濟成長의 均衡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무어니해도 경제발전 에 관한 思想의 展開에 있어 한스·싱어가 이룩한 최초의 革命的인

(3) *Perspectives on Economic Development* (Houghton Mifflin, 1970). 이 책은 S. Schiavo-Campo와 의 共著이다.

貢獻은 1949년의 논문으로 投資國과 被投資國 간의 利益分配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같은 線에 따라 많은 論議가 전개되고 방대한 文獻이 탄생하게 되었다.

논쟁의 과정중 二重性, 依存 및 交易條件의 惡化 등의 문제는 經濟學的 概念보다도 오히려 政治的 슬로우전으로 化했으며, 일단 焦點이 利益의 分配로 돌려지면 利益을 대표하는 사람은 극히 한쪽으로 치우치는 傾向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아마도 불가피 했을런지도 모른다. 1950년의 논문을 읽은 사람은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動的 要素를 洞察하고 國內資源의 再投資에 의하여 技術進歩의 성과를 吸收할 필요가 있다는 點이 강조되어 있는 것에 감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왜 工業만이 動態的 影響을 끼치고 1次產業에서는 그 點이 否定되어 있는가는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다.

이것에 대한 反應이라고 할 만한 것이 貿易과 投資가 가져오는 利益의 分配라는 同一 테마를 취급한 後期 논문의 출발점이 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惡役을 맡게 되는 것은 工業國의 工業的인 까닭의 動態的 利得의 獨占이 아니라 오히려 近代技術과 그것의 運搬人으로서 되어 있는 外國投資이고 그것이 後進諸國의 발전을 損害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發展途上國에 獨自的인 과학기술의 개발능력을 蓄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이 思考方式은 상냥히 極端的인 見解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새 技術을 海外에서 수입하는 것이 금지하는 것보다 一國의 상태를 더 惡化시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은 技術革新이 반드시 後進國의 利益으로 되는가 어떤가라는 질문과 같은 것이 아니다. 후진국에 유해하게 될 만한 종류의 技術進歩는 수 없이 존재한다. 그러나 資本集約的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기술을 排除하기 위해서는 失業問題를 약간 꼬집어 내는 것 以上の 正當化를 필요로 한다. 가령 트랙터 耕作이 二毛作을 가능케 한다면 어떻게 트랙터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근대기술이 勞動單位當이나 資本單位當으로 보아 종종 보다 생산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常識에 속한다.

오히려 다른 方向에서의 檢討가 더욱 있어야 할 것이다. 이 投資가 主된 공격목표로 되고 있는 곳은 奢侈品으로 여겨지는 消費財의 분야에서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外國資本을 導入하는 것은 其實 稀少한 外貨를 浪費해 버리는 것이 된다. 이러한 종류의 투자는 만약 利潤이 높은 것이라면 사치품에 보다 무겁게 課稅하면 될 것이고 外貨가 不足될 경우 重課稅 이외의 다른 手段도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한스·싱어의 글은 군데 군데 여러 사람에게 의견의 不一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글은 읽기 쉽게 쓰여져 있다. 그것은 事物을 極端的으로 單純化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한스·싱어가 自身の 主題를 완벽하게 把握하고 있고 아울러 自身の 아이디어를

알기 쉽고 생생하게 傳達하는 能力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 때문에 온 세상에 그의 信奉者의 數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

여하간 한스·싱어의 理論은 發展途上國의 開發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提起하고 있고 문제를 깊이 이해하게끔 思考를 자극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 그 것이 귀중한 것이다. 또 기본적으로 開發途上國의 經濟社會의 발전이 순조롭게 되어 나가길 바라는 先·後進國間에 있어서의 人道的 立場은 그의 주장에서 특히 구슬같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한스·싱어의 開發理論이 韓國經濟에 어느 정도 適用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이를 위해 앞서 言及한 한스·싱어의 理論을 綜合 整理하면서 韓國經濟의 現在와 將來를 對比시켜 봄이 有益하리라 사료된다.

生産要素로서의 技術의 重要性은 먼저 先進國樂觀論, 後進國悲觀論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고, 1950年代 이후 後進國悲觀論이 잘못된 것은 技術의 革新과 進歩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한스·싱어는 말하고 있다. 韓國經濟의 樂觀論이 技術進歩에만 달라 있는 것 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그의 人間資本(技術을 포함한)에 관한 卓見은 1961年代까지의 韓國經濟에 적절히 들어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

經濟開發을 위한 技術의 重要性은 케인크로스도 지적하였다시피 投資만을 重視한 해로드·도마모델이나 케인즈經濟學의 批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스·싱어의 技術은 先進諸國의 資本集約的인 技術을 배척하고 後進國에 맞는 勞動集約的 技術을 권장하면서 雇傭과 所得分配의 公正性에 直結시키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의 開發理論은 GNP 爲主의 케인즈經濟學이나 現代經濟學을 罵倒하고 雇傭과 所得分配에서 그 精粹를 잘 발휘하고 있다. 그는 經濟開發에 관한 思想의 變遷을 最近에 와서 所得分配과 貧困의 水準에 焦點을 맞추고 있으며 여기서 先進經濟와의 差異를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의 雇傭論은 단순히 케인즈流의 雇傭擴大가 아니라 失業者를 구제, 이들에게 衣食住를 提供하고 健康케 함으로써 소위 生産의 雇傭를 可能케 하려는 것이며, 營養失調의 상태에서 아무리 生産增加에 의한 GNP上昇을 期해 봤자 眞正한 의미의 發展(成長과 變化의 合)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다. 所得均配도 이러한 의미에서 뜻이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한 生産性向上이 가능할 때 참다운 發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技術과 雇傭을 연결시키는 作用을 한스·싱어는 勞動集約的 技術에 맡기고 있으며 이로써 그의 開發理論이 一貫性을 유지하고 獨特한 境地를 개척하는 一面을 엿보이고 있다.

한스·싱어理論의 참신성과 특이성은 先後進國間의 利益分配가 均衡을 잃고 있으며 先進國의 강한 利益追求欲 때문에 後進國의 經濟開發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한 데 있다. 先進國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先進國의 利益을 옹호하는 대신 公正한 立場에서 先後進國의 態度와 處地를 이해하고 學問的으로 國際經濟의 참모습을 이해하려는 데서 그의 學者的 良心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는 先後進國間의 利益分配에는 언제나 政治性과 國民經濟的인 利益追求가 고려됨을 강조하고 商品이나 資本 및 技術의 國際的 移動에 관한 新國際經濟秩序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 세 가지 面에 걸친 主張外에도 한스·싱어는 國際經濟開發에 관한 여러 가지 奇拔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하고 있지만, 一般的으로 또 綜合的으로 말해, 싱어理論은 印度, 파키스탄 등 英聯邦과 아프리카, 中東諸國 등 後開發途上國에 適合한 特性을 지닌 開發理論이라 할 수 있다.

또한 GNP가 아닌 雇傭, 雇傭의 量이 아닌 雇傭의 質과 內容에 치중하는 한스·싱어의 理論은 技術의 重要性和 貿易, 資本, 勞動의 國際的 新秩序를 제창하면서 그의 特有的 新境地를 開拓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人間資本의 育成과 擴大에 集約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야만 經濟發展이 可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先進國의 資本과 技術이 先進國 獨白의 利益追求에 몰두하는 나머지 後進國開發에 그리 有效한 援助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後進國은 스스로 자제의 技術을 蓄積하고 雇傭과 所得分配를 통해 온 國民의 人間資本蓄積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先進國은 全世界의 참다운 發展을 기하기 위하여 可能한 범위 내에서의 後進國支援이 經濟的으로나 人道的으로 必要하다고 아울러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싱어의 理論에 비해 현재 韓國經濟는 어떤 特徵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開發過程을 질어갈 것인가. 筆者의 생각으로는 한스·싱어가 暗默的으로 또 어떤 때는 明示的으로 分析의 對象으로 삼고 있는 가난한 나라의 範疇에 韓國이 포함되고 있는지의 與否부터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950年代나 60年代의 初盤에는 모르되 지금의 韓國經濟는 資本, 技術, 勞動, 構造, 經濟外的 諸般與件에 있어 싱어가 想定하는 「가난한 나라」 즉 後進國이나 後開發途上國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분이 妥當하리라 여겨진다. 이때까지의 經濟開發戰略이나 앞으로의 그것도 싱어의 생각과는 一致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스·싱어가 經濟開發에 있어 技術의 役割이 중요하다는 것은 韓國의 경우에도 合當한는지 모른다. 1962년부터 77년까지 상당한 資本投資가 이루어졌지만 이중 外資 속에는 高度

의 技術이 體化되었으며 이것이 成長에 寄與한 정도는 높게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물론 정확한 計量이 必要하겠지만).

그러나 그가 말하는 勞動集約的인 技術의 勸告는 韓國經濟의 發展過程 특히 1960年代는 모르지만 最近에는 그리 맞지 않는 주장이며 規模의 經濟를 살려 輸出單價를 낮추어야 하는 처지에서는 外國技術 中에서도 大規模의 國際化된 高級技術이 必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最近에 이르러 輕工業인 纖維에서도 國際規模의 機械設置가 必要하고 따라서 小規模의 勞動集約的인 技術로서는 도저히 國際競爭力을 배양할 수 없게 되었고 특히 重化學工業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에는 더 말할 나위조차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중화학공업 중에서도 비교적 勞動集約的인 業種이 選定되고 있지만 한스·싱어가 말하는 類의 노동집약기술이 야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그가 말하는 土着化된 技術의 革新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巨大한 규모의 重化學工業화를 計劃하고 있는 현재의 韓國經濟에서는 外國先進技術을 自由롭게 選擇 輸入하여야 함이 오히려 當然한 일일는지 모른다.

雇傭優先의 理論도 韓國經濟의 過去에 관한 한 그리 妥當한 것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1962年 第1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이 시작될 무렵부터 韓國經濟는 擴大되는 國際需要에 副應, 成長一邊倒의 擴大均衡政策을 지속해 나왔다. 그간 無理한 點도 많았고 批判도 받았지만 1973年度의 오일·쇼크를 試驗期로 하여 他를 冠絶할 정도의 높은 成長을 지속할 수 있었으며 年平均 10% 이상의 GNP成長에 따라 經濟構造도 高度化되었고 輸出도 15年內에 200倍 이상이나 急上昇, 드디어 商品輸出만으로도 100億弗을 초과하게 되었다. 輕工業은 물론 重化學工業化의 速度도 엄청나게 빨랐으며 蔚山, 龜尾, 浦項, 昌原, 麗川, 溫山工業基地의 巨大함은 이제 플랜트輸出과 企業輸出을 年數億弗臺에 이르게 하였고, 建設輸出 역시 1977年度에 數十億弗을 넘어서게 하였다.

이러한 成長過程 중 雇傭도 자연스럽게 급속히 增大되었으며 따라서 失業率이 下落, 이제는 人力不足의 상황마저 빚게 되었다. 農村의 潛在失業은 줄어들고 都市로 급속히 吸收되어 農繁期에는 農村에서도 人力이 모자라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賃金도 急騰포로 上昇, 이를 통한 所得分配도 서서히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韓國經濟의 경우, 확실히 GNP成長이 雇傭을 增大시켰으며, 한스·싱어가 걱정하는 生活水準을 向上 國民의 營養과 健康(平均壽命의 延長으로 測定하더라도)을 誘導한 하나의 모델 國家로 등장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게 되었다. 한스·싱어의 주장대로 雇傭과 所得均配가 原因이 되어 成長과 經濟發展을 結果하는 戰略은 우리의 경우에는 適合치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反對의 戰略이 오히려 적중하였다 함이 實證的으로 옳았다고 判斷할 수 있을 것이다.

外國資本과 外國技術의 輸入도 결과적으로 우리 成長에 有利하게 活用되었으며 貿易과 援助 등 商品과 無償資本의 國際的 移動 역시 우리에게 不利하게만은 作用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貿易은 우리 經濟에 牽引車의 役割을 하였으며 특히 輸出이 先導되어 經濟開發이 이룩되었다는 點에서는 싱어의 憂慮가 우리의 경우 그리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스·싱어의 理論 역시 外國投資나 貿易이 經濟開發을 지연시키거나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先進經濟의 利益追求의 強度와 後進經濟의 反應度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므로 여기서 한스·싱어의 理論을 否定할 수는 없다. 그러나 韓國經濟의 경우 다른 後發開發途上國과는 달리 貿易과 外國資本을 善用함으로써 成功한 國家로 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스·싱어의 新國際經濟秩序論은 事理에 맞는 한 우리 經濟에 도움이 될 것이고 人道的으로도 꼭 타당한 것으로 받아 들여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1991년까지의 韓國經濟에는 싱어理論이 어떻게 適用되어야 할지 이 또한 吟味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第4次 5個年計劃이 始發된 1977년부터 6次計劃의 종료기인 1991년까지 15年 동안, 한국 경제는 技術 및 技能集約的이며 비교적 資本集約的인 技術을 통해 產業構造를 高度化하고 이로서 重化學工業化의 기틀을 마련, 先進國經濟型으로 進入하려 하고 있다. 한편 經濟의 基本目標을 對外與件變化에 適應, 高度成長을 지속하고 이를 위해 重化學工業 중심으로 產業을 改編토록 계획하고 있다.

品目別로 보면 自動車, 電子, 造船, 機械 등의 技術 및 技能集約的인 產業을 重點 育成하고 鐵鋼, 非鐵金屬 등의 素材工業과 化學工業은 規模의 經濟를 최대한 살림으로써 國內聯關 產業의 經濟性を 提高토록 하고 있다. 이들의 育成을 위하여 外國技術의 導入을 과감히 추진하고 開發 改良하여 土着化시키는 한편 自體技術能力을 배양하기 위하여 研究·開發에 대한 投資를 적극 장려 확대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

經濟成長은 1977~91년까지 15年 동안 年 10.1%의 實質成長을 이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중 輕工業은 10.5%, 重化學工業은 16.2%로 成長, 결과적으로 1991년에 重化學工業의 比率이 全體의 41.4%를 占하는 등 產業構造의 先進國化가 이룩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 때 人口는 年平均 1.55% 증가할 것이며 雇傭은 年平均 3.3% 증가하여 1991년에는 總人口 4,500萬名 중 2,000萬名 이상에 달함으로써 드디어 完全雇傭을 實現토록 마련되어 있다.

輸出은 과거 15年間 一次產品 위주의 輸出構造를 勞動集約的인 輕工業製品 중심의 수출구

조로 전환함으로써 강력한 國際競爭力을 갖출 수 있었는데 反해, 앞으로는 高度로 資本集約的인 重化學工業은 피할 것이지만 技術集約的인 產業分野의 比較優位를 살려 輸入原資材 節約的이고 附加價值가 큰 각종 機械類産業과 自動車, 電子, 船舶, 플랜트 등의 輸出에 치중함으로써 1991년에 經常價格으로 1,150億弗 가량 수출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輸入은 서서히 自由化하고 資本 및 外換 역시 自由化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經常收支黑字規模의 增加와 外貨保有額의 增大(1991년에 100億弗 이상)로 韓國經濟는 對外債權國으로 轉換될 것이며 金融의 國際化와 資本去來의 自由化로 우리의 資本을 海外로 輸出하게 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이 모든 計劃은 한스·싱어의 「가난한 나라」를 위한 開發理論을 무색케 하고 있다. 그의 理論이 後發된 開發途上國을 想定하고 있는 限, 현재 이미 先發開發途上國으로서 高度成長, 雇傭增大, 技術高度化, 産業構造近代化, 輸出入多邊化 및 大規模化로 치닫고 있으며 앞으로 15年內에 先進國經濟型으로 탈바꿈하려는 韓國經濟에는 당초부터 그리 合當할 리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한스·싱어 博士의 來韓이 人間資本과 經濟의 動態性을 重視하는 그로 하여금 韓國經濟를 새로운 角度에서 관찰케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가 어떠한 생각을 새롭게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한번 더 올 경우 우리에게 어떠한 助言을 해줄지 저 못기 대되는 바 크나 하겠다.